

주요 거시 지표 상시모니터링

2023. 3. 9

1. 세계 및 우리나라 경제 상황

가. 세계 경제 상황 및 전망

○ 세계 상품 교역은 중국 및 유럽 등 주요국의 수요 둔화로 부진

* 세계상품교역량 : 22년 3분기 전기대비 1.3% 증가한 이후, 10월 -1.4%하락, 11월 -2.5% 연속 감소

○ 글로벌 통화 긴축기조, 인플레이션, 부채,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지속

○ 최근 '22년 4분기 글로벌 경기는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주요국의 동반 금리 인상, 중국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둔화되었으나 그 정도는 예상보다 완만

- 미국 S&P 글로벌 종합PMI 1월 46.8 → 2월 50.1으로 상승¹⁾²⁾

- 제조업 PMI는 1월 46.8 → 2월 47.3(예측치 47.8)으로 상승하였으나 예측치보다 소폭 하락, 기준치 50을 하회하는 수준

- 미국은 '22년 4분기 경제성장률 2.7% 전기대비(3분기 3.2%) 0.5%p 하락, 예상치(4분기 2.6%)보다는 완만한 하락, 미 연준 최종금리 기대치는 소폭 상승(22년 12월 현재 4.75~5.5%에서 23년 2월 16일 5.25~5.5%로 0.5%p 상향조정)

- 유럽은 겨울철 온화한 날씨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완화, 플러스 성장을 기록(22년 4분기 전기대비 0.1% 성장)

- 중국은 펜트업 수요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전망되는데, 금년 1월 기준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가 1월 52.9 → 2월 55.0으로 상승,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

○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복합위기에 대한 우려 다소 완화되는 모습³⁾

1) PMI란 구매관리지수로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기준치 50보다 높으면, 구매를 증가로 경기 확장세를 의미하고, 50이하 이면 구매를 저조를 의미하는 위축 국면을 의미

2) 자료: S&P글로벌

3) 작년 2023년 경제를 전망했을 때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한국과 충남 경제의 위기를 예상했었는데, 경제가 침체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플러스로 성장을 하는 등 위기 상

○ (전망) IMF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2.9% 전망

-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미·유로 지역의 견조한 소비·투자를 바탕으로 직전 경제성장률 전망 대비 상향 조정
- 그러나, 중국 리스크, 인플레이션, 부채, 경제분절화 등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
 - * 중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 부족한 의료시설에 따른 경제회복 제약, 부동산업 위기 심화 가능성 등 중국 리스크 위험요인 잔존
 - * 중국의 경기회복과 러-우 전쟁 지속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 * 높은 부채 수준과 저성장, 차입 비용 등 신흥국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
 - * 러-우 전쟁과 제재,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블록화,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다자협력 및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제약 초래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p)

	IMF			OECD			한국은행		
	22.10월	23.1월	조정	22.9월	22.11월	조정	22.11월	23.2월	조정
세계	2.7	2.9	(0.2▲)	2.2	2.2	(-)	2.2	2.4	(0.2▲)
EU	0.5	0.7	(0.2▲)	0.3	0.5	(0.2▲)	-0.2	0.6	(0.8▲)
미국	1.0	1.4	(0.4▲)	0.5	0.5	(-)	0.3	0.9	(0.6▲)
중국	4.4	5.2	(0.8▲)	4.7	4.6	(-0.1▼)	4.5	5.0	(0.5▲)

출처 : IMF_World Economic Outlook('23.1.31), OECD_EconomicEconomic Outlook('22.11.2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3.2.23)

주 1) IMF(1,4,7,10), OECD(5~6,11~12/중간전망 3,9), 한국은행(2,5,8,11) 경제전망 발표

2)()는 직전 경제성장률 전망 대비 조정폭을 나타냄

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 및 전망

구분	경기	생산	대외 거래	설비 투자	고용	소비	물가
증감	↓	↓	↓	↓	↑	↓	↑

○ 전반적 경기 하락(1월)

- 경기동행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하락(동행 -0.4p, 선행 -0.3p)

○ 광공업 생산 감소세 지속, 서비스업은 증가, 설비투자 감소

- (생산, 1월) 광공업 생산(전년동월비 -12.7%, 전월비 2.9%),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비 5.9%, 전월비 0.1%)
- (대외거래, 1월) 수출 463억불(전년동월비 -16.6%), 수입 589억불(전년동월대비 -2.8%), 무역수지 127억불

* 반도체 등 IT 수출품목 동반 위축,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

- (투자, 1월) 설비투자(전년동월비 -3.9%, 전월비 -1.4%), 건설기성(전년동월비 0.9%, 전월비 1.8%)

○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1월)

- 고용률 60.3%(전년동월대비 0.7%p), 취업자수 2,736만 명(전년대비 41.1 만 명 증가)
- 제조업(-3.5%), 건설업(-3.9%) 각각 감소, 서비스업(52.8%) 증가
- 상용직 · 자영업자 증가세 둔화, 임시직 · 일용직 감소 지속

○ 준내구재 중심 소비 감소, 물가 상승세 지속

- (소비, 1월) 내구재(전년동월비 -3.5%, 전월비 -0.1%), 준내구재(전년동월비 -5.8%, 전월비 -5.0%), 비내구재(전년동월비 3.9%, 전월비 -1.9%)
- (물가, 2월) 소비자물가지수 110.4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환율 하락으로 가격 오름폭 둔화, 외식 등 연초 가격조정 등이 반영되며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

○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 (주택가격, 1월) 매매가(전월비 -1.49%), 전세가(-2.29%), 하락폭 다소 완화되었으나

하락세 지속

○ (전망) '2023년 경제성장률 1.6% ~ 1.8% 전망, 성장세 둔화

-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완만한 소비 증가세, 주택경기 침체, 설비투자 부진, 반도체 경기 하강 및 글로벌 수요 둔화가 주요 하방리스크로 작용
- 최근 IMF는 높은 수출 비중으로 세계 무역 둔화에 타격을 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추가 하향 조정
- 2023년 국가 재정(통합재정 기준)도 전년대비 4.1% 감소 전망

* 2022년 대규모 추경에 따른 기저효과, 재정건전성 정책 기조로의 전환, 최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기조로 하되 경기 둔화 등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 수준을 설정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p)

	IMF			OECD			한국은행		
	22.10월	23.1월	조정	22.9월	22.11월	조정	22.11월	23.2월	조정
한국	2.0	1.7	(-0.3▼)	2.2	1.8	(-0.4▼)	1.7	1.6	(-0.1▼)

출처 : IMF_World Economic Outlook('23.1.31), OECD_EconomicEconomic Outlook('22.11.2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3.2.23)

주 1) IMF(1,4,7,10), OECD(5~6,11~12/중간전망 3,9), 한국은행(2,5,8,11) 경제전망 발표

2)()는 직전 경제성장률 전망 대비 조정폭을 나타냄

2. 충남경제 상황

가. 전반적 동향

○ 현 충남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7개월 연속 하락, 완전한 **경기 하강 국면 진입**

- 코로나19 이후 지역 축제 정상화, 연말 효과 등으로 도내 소비가 소폭 개선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금액·물량 감소와 제조업·농림어업·숙박 및 음식업 등 주요 업종별 신규 구인 감소
- 자본재 수입액 감소 등 기업의 투자 활동과 도내 제조업 전력 사용 감소 등 **전반적인 산업 활동도 위축**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2.3%), 중간재수출액(-5.2%), 판매전략량_제조업(-0.3%), 자본재수입액(-3.6%), 신규구인인원(-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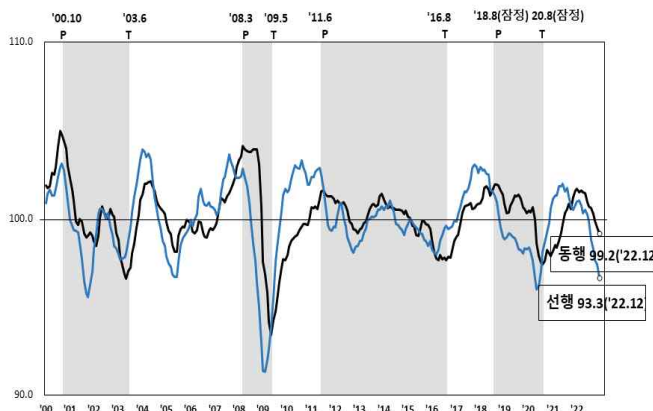
○ 체감경기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을 하회**

- 도민의 체감(실적)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심리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증가
- 권역별로 보면 서해안권을 제외하고 모든 권역에서 체감(실적) 경기 개선, 다만 최근 도내 주력산업 위축을 반영하듯 산업 밀집도가 높은 북부권 체감(실적)도가 충남 전체 평균보다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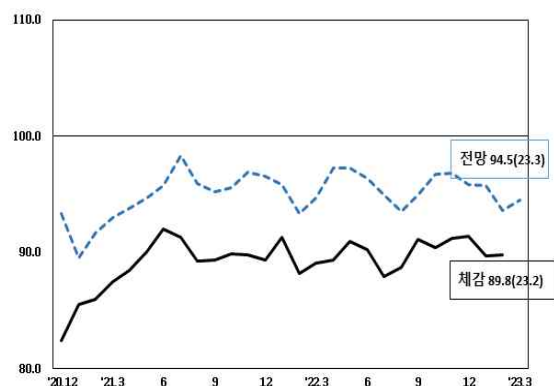
* 지난해 11월 이후 북부권 경기심리지수_전망 3개월 연속 하락, 3월 상승 전환

- 최근 명절과 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기대감이 높았던 서해안권은 2월 강추위 등으로 소폭 위축되는 모습

충남 동행(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충남경기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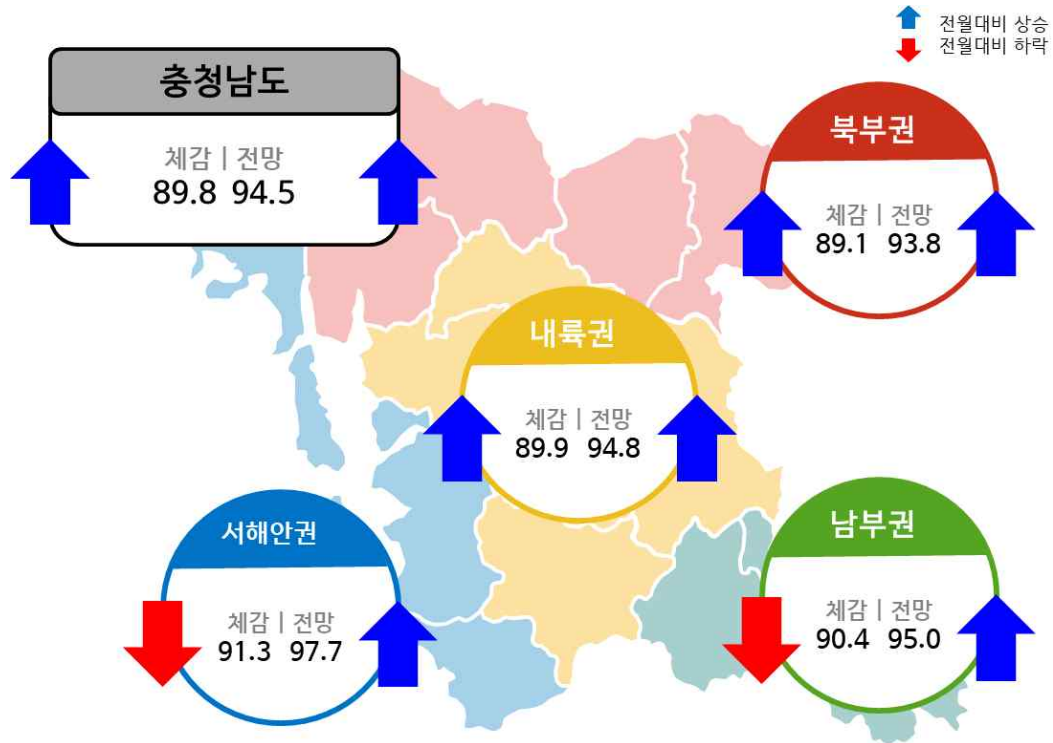


자료 :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경기종합지수 보고서(2023.2월) / 충남 사회경제패널조사

<충남 경기종합 및 심리지수 추이(P)>

구분		'22.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3월	전월차
경기 종합 지수	동행 순환변동치	100.6	100.3	99.9	99.5	99.2	-	-	-	-0.3
	선행 순환변동치	97.6	96.5	95.3	94.8	93.3	-	-	-	-1.5
경기 심리 지수	체감 (실적)	88.7	91.1	90.4	91.2	91.4	89.7	89.8	-	0.1
	전망	93.6	95.0	96.7	96.8	95.8	95.7	93.6	94.5	0.9

자료 :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경기종합지수 보고서(2023.2월) / 충남 사회경제패널조사



자료 :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 사회경제패널조사

나. 주요 경제 부문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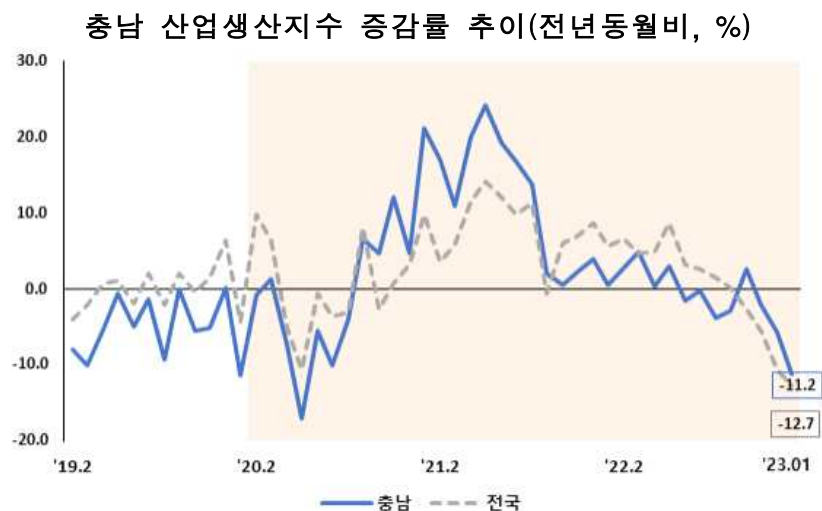
① 산업과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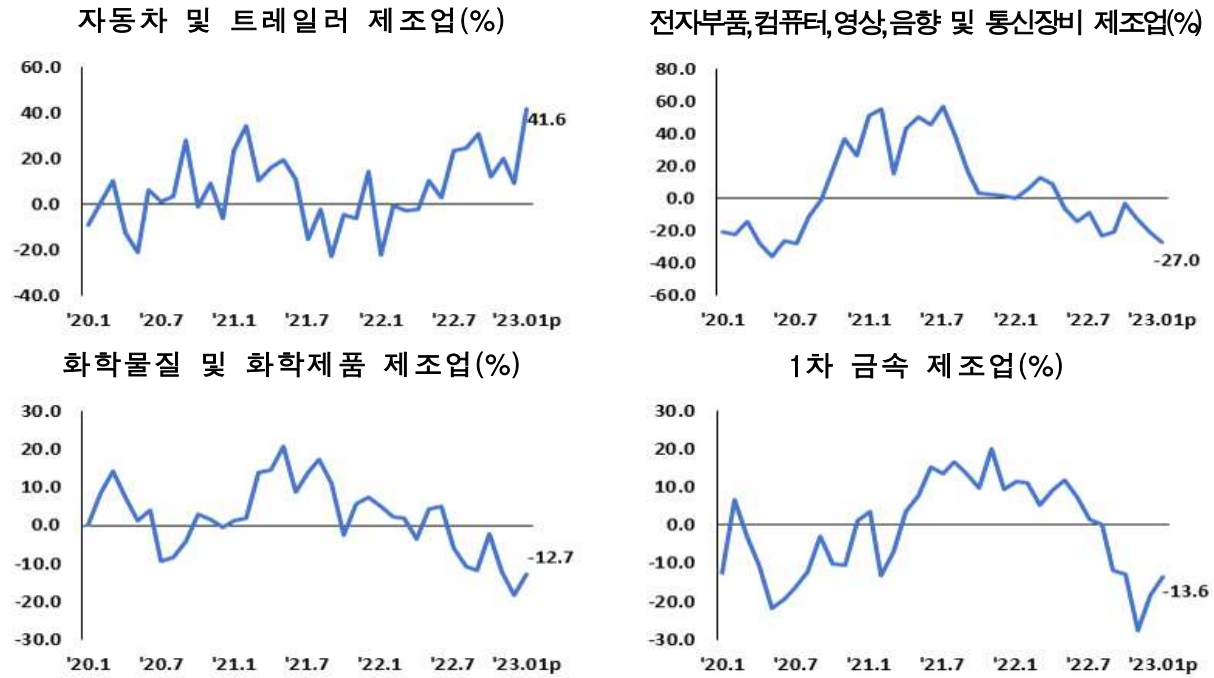
구분	생산(1월)	출하(1월)	재고(1월)	주요 수출 품목(1월)
산업활동	↓	↓	↑	수출↓, 수입↓
반도체	↓	↓	↑	반도체 ↓
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석유화학	↓	↓	↓	기초유분 ↑ 석유화학중간원료 ↓, 합성수지↓
석유정제	↑	↓	↓	석유제품 ↑
자동차	↑	↑	↓	자동차↓, 자동차부품 ↓
1차금속	↓	↓	↓	철강판↓

* ↑ (10% 이하), ↑ 10% 이상, ↑ 20% 이상(감소 동일한 구조)

○ (생산) 전년동월대비 -11.2% 감소, **자동차·석유정제업을 제외한 핵심산업은 부진**

- 계절적 비수기인 디스플레이산업(지난해 5월 LCD 철수로 생산량 급감, 기저효과 발생), 글로벌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영향으로 전자부품 등 제조업 생산 급감
- 최근 화물연대 파업, 국제유가 안정세와 글로벌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과 건설업 경기 둔화 요인까지 더해진 1차 금속 제조업의 생산도 부진한 상태
- 아이오닉6, 그랜저 풀체인지 등 신차 생산으로 활력을 찾은 자동차 생산만이 활기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출하) 전년동월대비 -8.7% 감소, (재고) 전년동월대비 17.7% 증가

- 반도체 등 전자부품 등 수요 둔화에 따른 출하 감소와 재고부담 증가가 주요 요인
- 철강,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감소 → 출하·재고 감소로 이어지는 모습
- 석유정제업은 생산을 소폭 늘려 재고를 조정하는 중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만이 생산과 출하 증가, 재고소진 등 원활한 모습

<충남 주요 산업별 생산지수 추이 (%)>

산업별	'22.1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전년동월비
광공업 생산지수	113.8	108.7	112.1	113.7	12.7	101.1	-11.2
제조업 생산지수	113.9	110.2	114.6	115.7	112.7	100.8	-11.5
전자부품 등	128.2	112.6	126.1	120.4	106.8	93.6	-27.0
1차금속	118.4	94.8	91.0	85.5	97.5	102.3	-13.6
자동차	82.6	115.4	116.0	129.1	129.5	117.0	41.6
화학물질 등(의약품 제외)	114.8	98.1	98.5	96.1	95.3	100.2	-12.7
석유정제품	97.9	100.5	109.4	111.9	111.9	106.0	8.3
광공업 출하지수	111.3	107.2	108.9	108.1	107.8	101.6	-8.7
광공업 재고지수	107.2	128.8	124.6	132.6	127.1	126.2	17.7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2020=100)

[5대 핵심산업 동향]

- (반도체) 지역 반도체 기업 확장을 위한 준비 진행, 메모리반도체 부문 선제적 생산량 조정 중이나 **삼성전자 인위적 생산량 감산 조치 계획 無** → 지역 반도체 **생산 규모는 유지, 재고는 부담**
 -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확장 :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공장 설립 예정**
 - * 총 사업비 약 320억 원
 -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법인에 반도체 후공정 시설투자**를 위한 하나씨티은행과 2억 달러 금융지원 업무협약
 - 국내 반도체 패키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반도체 포스트 펌 발전전략 포럼’ 출범
 - * 우리나라와 대만 기업 간 패키징 기술 격차 10년
 - 엘디티(디스플레이 구동IC), 큐에스아이(광반도체, 레이저다이오드), 하나머티리얼즈(Silicon & Fine ceramics parts) 등 **지역 주요 반도체 기업 2022년 전년대비 영업이익 감소**
 - * 엘디티(디스플레이 구동IC) : 영업이익 14억 8,300만원, 전년대비 -20.2% 감소
 - * 큐에스아이(Laser Diode) : 영업이익 18억 4,500만원, 전년대비 -31.8% 감소(매출 -22.7% 감소)
 - * 하나머티리얼즈 2022년 매출 3,045억원(전년대비 12.3%↑), 영업이익 928억원(12.8%↑) '22.4Q 724억원(전년동분기대비 8.8%↓), 영업이익 168억원(-16.8%↓)
 - 2022년 삼성전자 DS부문 매출 98.5조원으로 3% 증가, 영업이익 23.9조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급감
 - * '21.4Q 영업이익 8.8조 → '22.3Q 5.1조 '22.4Q 0.3조으로 급감
 -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진행된 D램, 낸드플래시 수요 감소,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선제적으로 가동률 조정 중, 삼성전자 인위적 생산 감산을 일축 → 지역 후공정 업체 생산활동 영향은 다소 미미할 것
 - * 마이크론 2023년 반도체 20% 감산 결정
 - * SK하이닉스 2022년 대비 투자 규모 50% 이상 감축, 마이크론 37.5% 감축, 인텔 운영비 3년간 최대 100억 달러 감축
 - 생활가전용 카전(전기차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가전) 반도체 칩 개발과 실리콘 카바이드(전력) 반도체 생산 확대 등 **신규 반도체 수요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
 - 더불어 AI반도체(현재 GPU에 의존, 저전력+데이터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는 새로운 반도체) 시장 공략
 - * 카트너, 2023년 AI반도체 시장 규모 343억 달러(약 44조원) 예상
 - 신규 분야에 대한 개발 수요는 확대되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인력 확보는 치열

○ (디스플레이) **전방(가전 등) 산업 위축** 지역 관련 상장사 영업이익 감소, **소재사의 사업다각화 진행**, 신소재 · 차세대기술 투자는 지속

- 코로나19 수혜로 판매가 증가했던 가전제품의 판매 둔화가 나타나며 지난해 삼성, LG 등 가전부문 재고량 증가 → 디스플레이 수요 감소 지속

* 신화인터텍(광학용필름) : 연결기준 22년E, 영업적자 27억 7400만원, 적자 전환

- OLED 소재부문 경쟁심화, 주 고객사의 선제적 재고 조정 등으로 매출 감소, 4분기 출하 증가, 덕산테크피아 등 소재사 4분기 영업이익 증가 예상

* 덕산테크피아(22년E) : 매출액 113십억원, 영업이익 12십억원(자료:DB금융투자)

* 자회사 설립을 통한 2차전지 전해질 생산 등 사업다각화 추진

* 솔브레인 씨엠디엘 인수(OLED 유기재료 리사이클 업체) → OLED 신소재 개발 지원

- 삼성디스플레이 OLED 전환 완료, 지역에 LCD 관련 협력업체 등의 생산량 감소,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에 따른 지역 여파도 지속

* 지역 LCD 액정 보호필름 제작업체 지난 7월부터 수주 전무, 유급휴직에 돌입

* LG전자 휴대폰 납품업체 사업전환에 고전, 지역 상장사인 유티아이도 매출과 영업이익 급감 (지난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 전환)

- 다만,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신소재 부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

* 한화솔루션 OLED 패널 증축용 소재 투자 협약(천안)

○ (철강) 건설경기 위축, 금년 플랜트 위주의 공급 계획, 철스크랩 가격 변동성 확대, 튀르기에 지진 피해 확산에 따른 영향 중요

- 최근 철강산업은 **중국 수요 부진과 철강값 하락, 건설경기 불황** 등 각종 부진에 직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에 강관을 공급하는 자구책 마련,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까지 희망

- 국내 해상풍력발전의 공급체계상 구조물 제작부터 풍력터빈까지 모든 분야 강점을 가지고 있어 강관 공급을 중심으로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

* 두산에너지빌리티 : 제주지역에 추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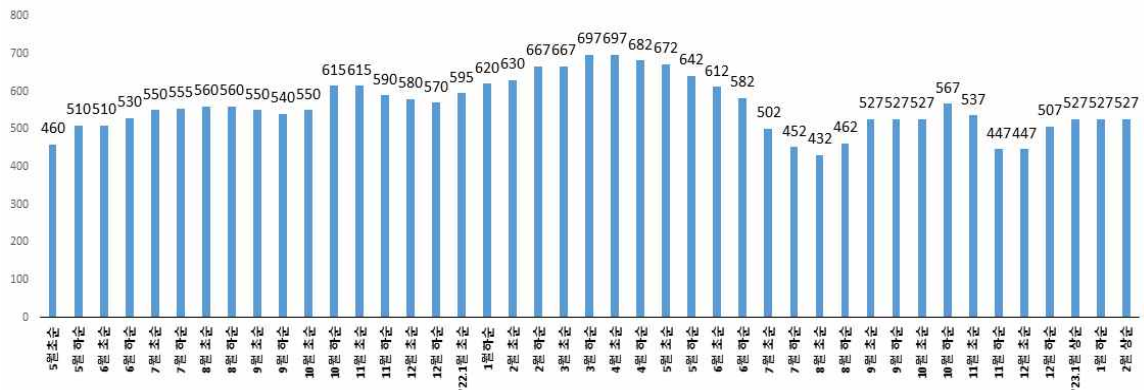
- 현대제철 주 수입원은 자동차 강판과 조선향 후판, 금년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 돌입, 지난해와 같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 큰 편, 철광석 가격이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으로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

* 2021년 상반기 10만원 인상 → 2021년 하반기 40만원 추가 인상 → 2022년 상반기 10만원 인상 → 2022년 하반기 10만원 인하 합의

* 철광석 가격 추이 : 지난해 3.7일 톤당 162.8달러 → 10.31일 톤당 79.5달러로 하락 → 12.6일 109.7달러

- 철강산업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등 철스크랩 수요 증가로 고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 12월부터 철스크랩 가격 회복 → 최근 고점 인식, 일본·러시아산 수입 추진 중

* 고철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튀르키예 지진 피해 확산에 따른 영향도 중요 고려 요인



자료 : 한국철스크랩거래소(현대제철 당진 기준)

○ (자동차) 지역 생산 기반 아이오닉6·그랜저 등 신차 판매 호조, 신규 채용 진행, IRA 배터리 세부규정 발표 금년 3월 말로 연기

- 현대차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 울산·전주·아산공장 근무 총 700명 수준

* 현대차 2023년 판매목표 : 432만대, 투자계획 10.5조원

- 2022년 현대차 글로벌 판매 실적은 국내 도·소매 -5.2% 감소, 그랜저 신차 출시로 기존 차종 판매 급감, 아이오닉6, 그랜저 신모델 판매 호조

- 현대차 아산공장 생산 차종인 아이오닉6 11,289대 판매 / 그랜저 신차 : 8,509대 판매(2022년 내수판매 기준)

* '23년 1월 아이오닉6 23대, 그랜저(GN7) 5,407대 판매

- IRA 배터리 관련 세부규정 발표 금년 3월 말로 연기

* 전기차 보조금 지급요건(7,500달러) : 미국내 생산, 배터리 북미산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750달러를 배터리 사용 광물의 40%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하면 나머지 3,750달러를 지급

*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배터리 세부규정 발표가 금년 3월로 연기, 테슬라, GM, 포드 등 미국 현지 자동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

- 사이드 임팩트 센서 반도체 공급 지연으로 기아 오토랜드 광명 1공장 9~13일 가동 중단(부품 공급망 문제 지속)

* 기아 오토랜드광명 1공장 : 카니발, K9 생산, 스텔러 등 생산

- * 사이드임팩트센서 : 측면 에이백 전개를 위해 필요한 센서, NXP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
→ 비오니어 상하이 공장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
- * 현대 아이오닉5, GV80, GV60, GV80, GV70 등 광범위하게 사용, 현대차 울산공장도 생산량 조절 중

○ (정제 및 석유화학) 기초 소재산업 성장 지속, 산학간 채용연계형 인력 양성 본격 추진, 에틸렌 스프레드 회복세 진입, 고부가·친환경 신시장 선점, 화학산업 성장기반 마련

- 리튬플러스 전고체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리튬 1.4톤 판매(1.31일 두 번째 출하)
 - * 수산화리튬 → 황화리튬 소재업체에 납품 : 전고체 전지 필수 재료
 - * 금산 추부 공장 연간 3600톤 규모 설비 구축(1공장) , 2공장 추진 중(5만톤)
- 신성대, 채용연계형 화학공학과 첫 신입생 입학(40명)
 - * 대산석유화학단지 전문대졸업 생산직 인력 부족, 경력직은 여수·울산 지역으로 이직
 - * 참여기업 :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롯데엠시스, 코오롱인더스트리
- 에틸렌 스프레드(판매가격-원가) 금년 2.3일 159.37달러, 2.10일 156.37달러로 반등
 - * 1월 20일 29.62달러, 27일 38.35달러
 - * NCC 업스트림 생산 업체 경기 최저점 통과 전망 지배적
- 플라스틱 산업 인공지능 생산공정 구축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
- SGC에너지, 전북 군산 사업장에 570억원 투자, CCU 설비 구축, 연간 1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해 액화탄산 형태로 생산할 계획
 - * 고순도 액화탄산 :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
- 롯데케미칼 : 모빌리티 수소 공급망 사업 추진, 대산공장내 용지에 부생수소를 활용한 대규모 고압 수소출하센터(에너하이) 건설

[대외거래]

○ (수출) 전년동월대비 -39.6% 감소, 7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 수출 감소가 주 요인

- 지난 7월부터 수출 감소 전환, 감소폭 확대 중
-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24.3%)·중국(21.0%)·미국(11.5%) 順
-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3위 수출 규모
 - * 전국 2위 수출규모 유지하였으나 플랜트 수출에서 호조를 보인 울산이 2위를 차지

-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중국·홍콩 등으로의 반도체 수출 감소가 주된 요인
- 더불어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조립라인 공정이 입지한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급감하며 수출 감소폭 확대
- 코로나19 수혜로 수출이 증가하였던 합성수지·컴퓨터 등은 정상화 과정이며 다만 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국 자급률 향상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수출 감소도 나타나는 중
- * 자동차는 쏘나타 북미 현지 생산 물량(미국은 투싼 생산, 국내 일감부족 현상 완화 등)이 아산에서 생산되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급증, 현재 아이오닉6 내수용 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물량 급감
-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플라스틱과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세 지속

<충남 주요 10대 수출 품목 증감(23.1월 전년동월비 기준)>

↓ 감소품목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 석유화학중간원료,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제품
↑ 증가품목	석유제품, 기초유분, 건전지 및 축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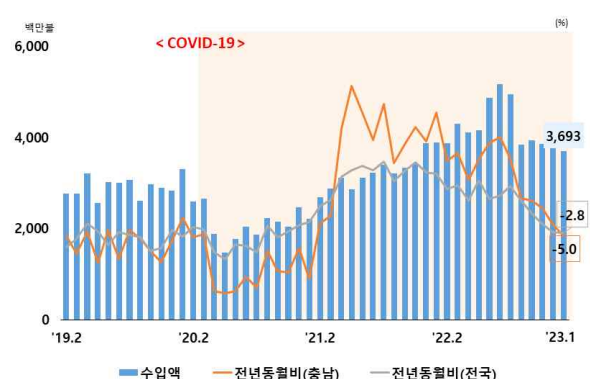
○ (수입) 전년동월대비 -5.0% 감소, 24개월 만에 감소 전환

- 도내 주요 수입품은 원유, 석탄, 석유제품, 천연가스, 정밀화학원료 등으로 에너지, 원자재(광물성 원료) 중심의 수입 구조
- 최근 수입은 **글로벌 원부자재 가격 안정세**로 수입액 증가폭도 하향 안정화 추세
→ 1월 원유 수입이 금액과 물량 모두 감소하며 감소세 전환
- 다만, 주요 자원국의 원자재 수급 조절 방침, 공급망 문제,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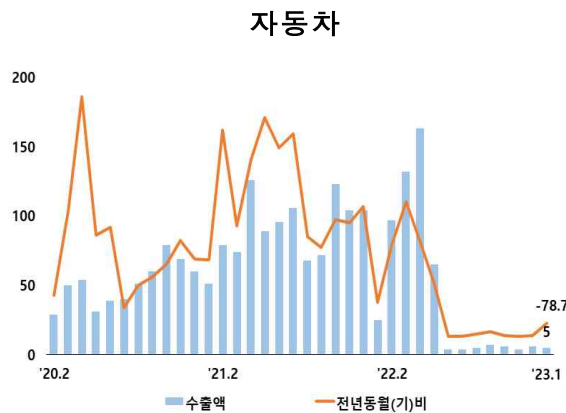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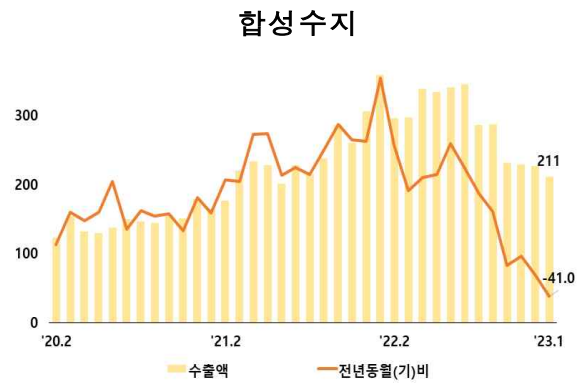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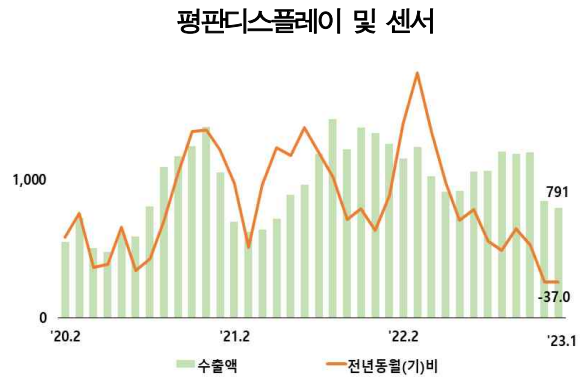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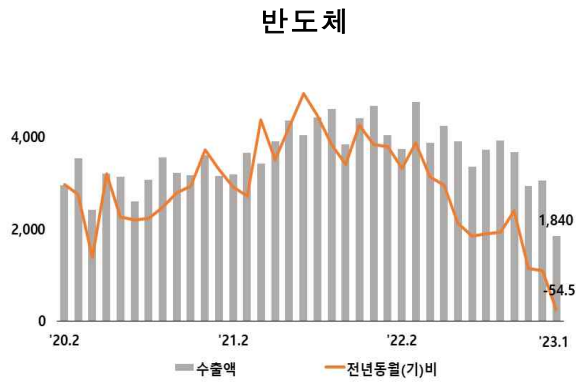
충남 수출액 동향(백만불, 전년동월비, %)



충남 수입액 동향(백만불, 전년동월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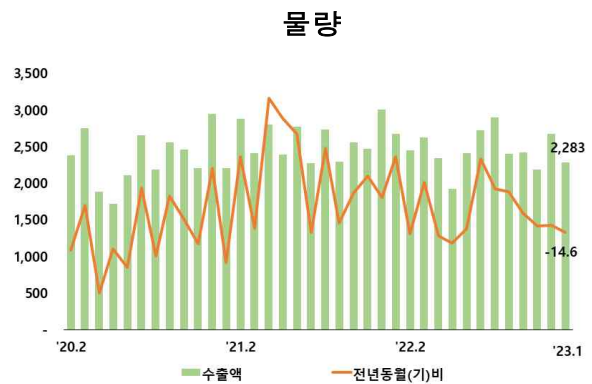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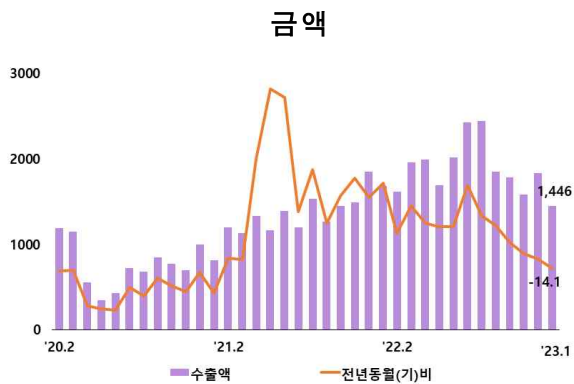


<주요 품목 수출액 동향(백만불, 전년동월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자체통계(MTI 3단위)

<원유 수입 동향(백만불, 톤, 전년동월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자체통계(MTI 3단위)

<충남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백만불, %)>

품목별	'22.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전년동월비
수출액	9,181	9,148	9,349	8,492	7,436	7,180	5,541	-39.6
반도체	4,040	3,708	3,908	3,669	2,927	3,052	1,840	-54.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55	1,062	1,197	1184	1,195	843	791	-37.0
컴퓨터	957	775	913	667	556	477	276	-71.1
석유제품	589	1,204	992	844	694	695	707	19.9
합성수지	358	285	286	231	229	226	211	-41.0
수입액	3,887	4,944	3,828	3,934	3,856	3,966	3,693	-5.0
원유	1,683	2,439	1,846	1,780	1,580	1,831	1,446	-14.1
유연탄	482	695	394	516	539	553	532	10.2
나프타	235	297	384	393	416	355	375	59.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자체통계(mti 3단위, 유연탄, 나프타는 mti 4단위 기준)

② 중소기업

구분	경기	수출	인력사정	원자재	자금사정	투자
증감	↑	↓	↑	—	↓	↓

* ↑ (10% 이하), ↑ 10% 이상, ↑ 20% 이상(감소 동일한 구조)

○ (전반적 상황) 구매자관리지수 전월보다 0.4p 상승, 5개월 연속 하락 이후 반등

- 최근 대표적인 **기업활동의 선행지표인 PMI 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 → 이후 소폭 반등
- 지난달에 비해 신규 주문과 생산/영업 활동이 개선된 것이 특징이지만 5개월 연속 하락에 따른 영향은 지속
- 고용, 평균원가(인건비, 이자, 장비관리비용 등), 평균제품가격 등 주요 기업 활동은 대체로 변화 미비

○ (수출) **전년동월대비 -18.0% 감소**, 3개월 연속 감소

- 충남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보다(전년동월비 -8.7%) 높은 전년동월비 -18.0% 감소
- 중소기업 수출 품목군 수출 추이를 보면(전년대비 증감률) 기초산업기계(전국 -1.2%, 충남 -4.6%), 정밀기계(전국 -8.5%, 충남 -23.1%), 전기기기(전국 15.1%, 충남 -0.2%) 등

전국보다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며 도내 중소기업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위축

- 금년 1월 기준으로 화장품(전년동월대비 -6.8%) 플라스틱제품(-29.7%) 수출 감소 시현

*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목(전국기준) : 일반 및 정밀 기계, 정밀화학제품, 철강, 수송장비 부품, 섬유직물, 화장품류, 플라스틱제품 등

- 충남은 주로 반도체, 석유제품 등을 수출하는 대기업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충남 전체 수출액 중 약 17.4%로 적은 편

* 지난해 대기업 수출 연평균 21.9% 증가한 것에 반해 중소기업은 5.2% 증가

- 반면, 수출기업 수는 1,163개(전체 1,356개)로 전체 약 85.8%를 차지

○ (신규채용) 전월보다 0.2p 상승, 4개월 연속 하락 → 이후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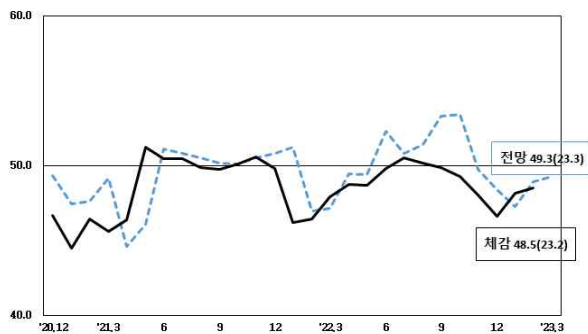
- 지난해 3분기 회복세를 보인 신규 채용은 지난해 10월부터 축소

* 정원확충에 따른 인력채용 축소와 인력채용 부침으로 인한 채용지연이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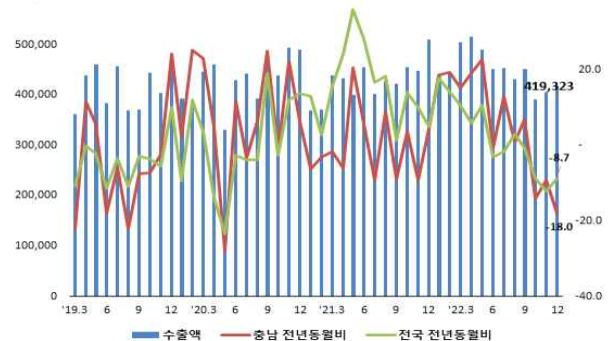
○ (원자재구입) 전월과 보합, 단기 변동성 완화

- '21년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후 원자재 구입가격 상승 →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하락 → 최근 기초 원료제품가에 반영되며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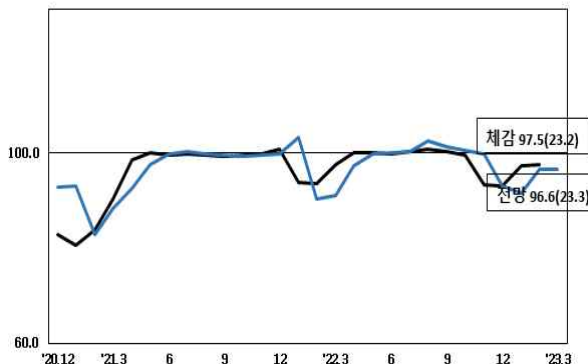
충남 중소기업 PM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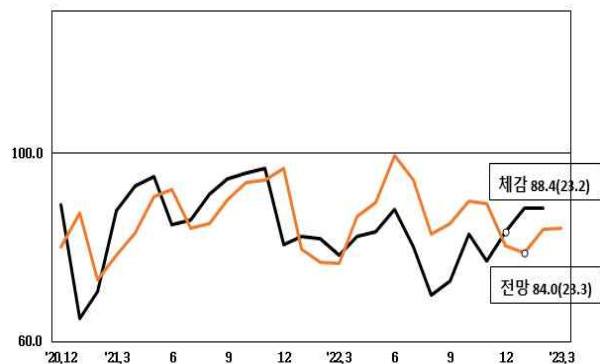
충남 중소기업 수출액 동향(천불, %)



인력사정_신규



원자재 구입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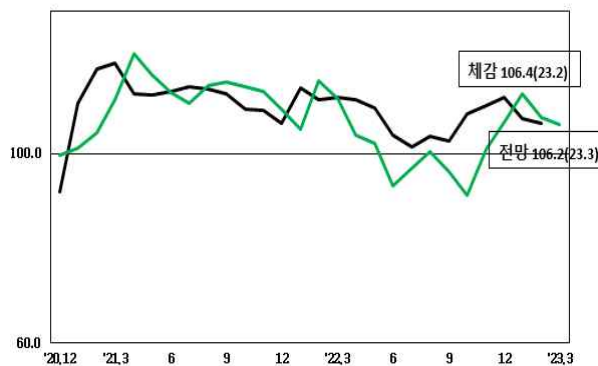


자료 :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 사회경제패널조사,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맞춤형 통계(수출)

○ (자금사정) 전월보다 -0.9p 하락, 2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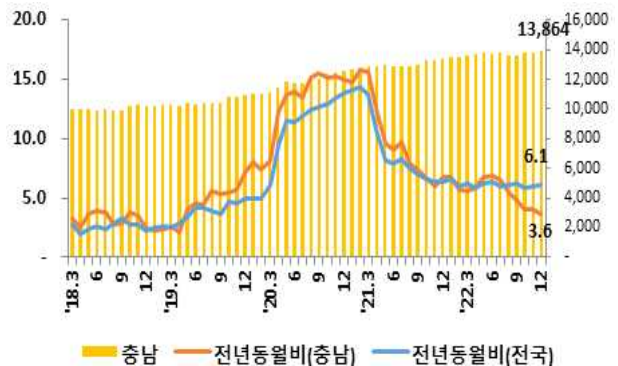
- 지난해 10월 이후 개선되던 중소기업 자금사정 다소 악화
- 지난해 12월 기준,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대출금은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한 약 13조 8,600억원으로 전국평균 6.1%를 하회
- 보통 매년 3월 기업의 신규대출이 늘어나는데 지난해는 3월 증가세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여유자금에 있는 기업은 대출을 조기 상환
- * 일반적으로 기업대출은 매년 3월 신규대출이 늘어나는 현상(법인세 신고 후 신용평가 진행을 위한 물리적 시간 소요, 경기하강시 금리인상 등을 고려 법인세 신고전인 3월 필요 자금을 융통하는 것)
-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원활한 모습, 다만, 최근 경기둔화가 본격화됨에 따른 규모별 업종별 현상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 향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중요

자금사정



자료 :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 사회경제패널조사

운영자금 대출금(십억원,%)



자료 : 한국은행 예금은행 지역별 기업대출(말잔)

○ (투자) 자본재수입액 전년동월대비 -1.0% 감소, 3개월 연속 감소, 시설투자 대출금 증가세 지난해 3월 이후 주춤

- 자본재수입은 기업들의 투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본재수입 둔화 가속화, 반도체 기업을 필두로 기업들의 투자 위축 또는 지연이 나타나는 모습
-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 추이(전년동월비 · %) : 73.4(22.1월) -12.1(6월) -24.5(12월)
-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대출금 증가세 추이를 보더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2년 3월까지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 이후 증가폭 둔화
- *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소재산업 육성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
- * 충남의 산업별 대출금 현황을 보더라도 화학산업(22.3Q 전년동기대비 15.0%, 충남 평균 7.9%)의 대출 증가세 뚜렷

자본재 수입액 추이(백만불,%)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성질별 통계

시설자금 대출금(십억원,%)



자료 : 한국은행 예금은행 지역별 기업대출(말잔)

<충남 중소기업 활동 주요 부문별 동향(백만불, 개, 십억원, p, %)>

구분	'22.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전월차
중소기업 PMI	46.4	50.2	49.9	49.3	48.1	46.6	48.1	48.5	0.4
수출액*	443	432	453	391	406	419	-	-	-18.0
수출기업수*	1,143	1,176	1,207	1,203	1,194	1,163	-	-	-5.4
인력사정(신규)BSI	93.6	100.8	100.2	99.6	93.3	93.0	97.3	97.5	0.2
원자재구입가격BSI	81.8	69.8	72.8	92.9	77.1	83.3	88.4	88.4	0.0
자금사정BSI	111.3	103.7	102.6	108.4	110.0	111.9	107.3	106.4	-0.9
운영자금 대출금*	13,485	13,631	13,592	13,769	13,793	13,864	-	-	3.6
투자									
자본재수입액*	354	380	329	363	379	341	323	-	-1.0
시설대출금*	9,627	10,091	10,179	10,307	10,327	10,365	-	-	9.1
설비투자BSI	109.5	91.9	94.5	99.1	99.1	106.7	103.5	103.4	-0.1

자료 :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사회경제패널조사 / 한국은행 예금은행 지역별 기업대출(말잔)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맞춤형 통계

주 : *는 전년동월비이며, PMI와 BSI는 체감 지표, 자본재수입액은 충남 전체를 의미함.

③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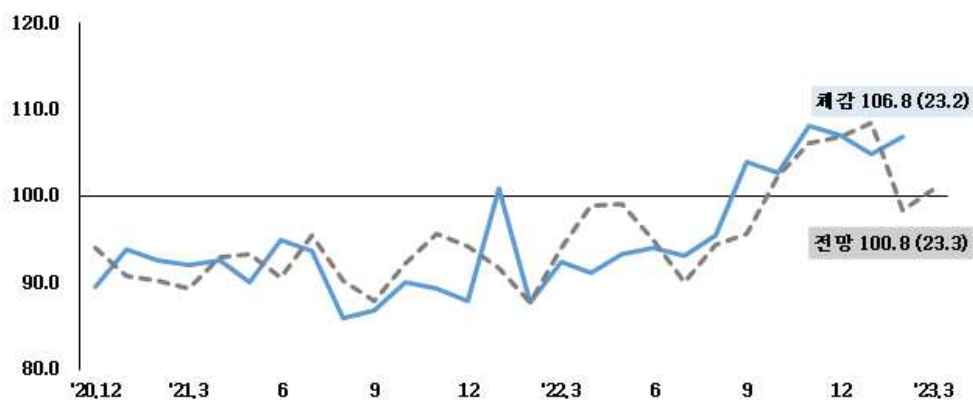
구분	경기	자금 사정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매출	창업, 휴·폐업률		
						신규가맹	휴업	가맹해지
증감	↑	↓	↗	↑	↑	↓	↓	↑

* ↑ (10% 이하), ↗ 10% 이상, ↘ 20% 이상(감소 동일한 구조)

○ (경기) 전월보다 1.9 상승, 지난해 상반기 대비 체감(실적) 경기 개선

- 최근 경기전반에 대한 낮은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2개월 연속 하락하던 매출 실적이 소폭 개선되고 재고 물량도 일부 소진되면서 체감경기 상승
- 금리 인상, 글로벌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지난해 상반기 보다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 개선

소상공인&전통시장 BSI



자료 :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 사회경제패널조사

○ (자금사정) 전월보다 2.4p 상승, 전통시장은 보합, 소상공인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준치 100을 하회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 지속

-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전통시장의 변동성은 미비한 편이나 소상공인은 매출에 따라 자금사정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 소상공인 자금사정 체감(실적)은 소폭 개선되었지만 88.7로 여전히 기준치 100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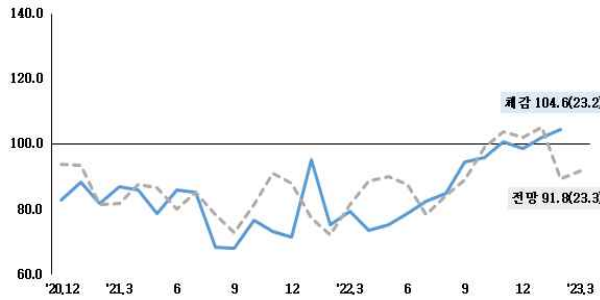
* 지난 연말 이후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이 소폭 회복되면서 자금사정도 소폭 개선

- 전체 은행권 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제외한 기타기업 대출금 추이를 보면,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시기 대출이 급증 → 기 대출금 상환 → 일시적 대출금 잔액 감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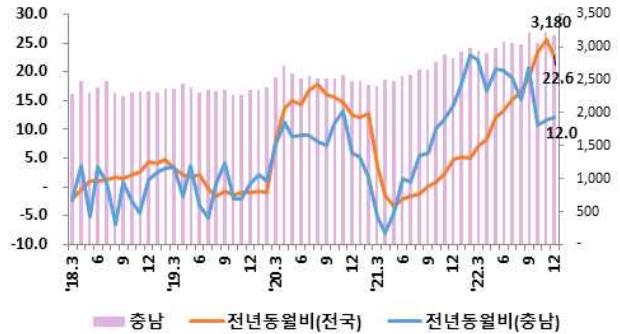
-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기 위축 지속, 대출금을 활용한 사업체 운영과 기 대출금 상환 등이 반복되는 모습

자금사정



자료 :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 사회경제패널조사

기타기업 대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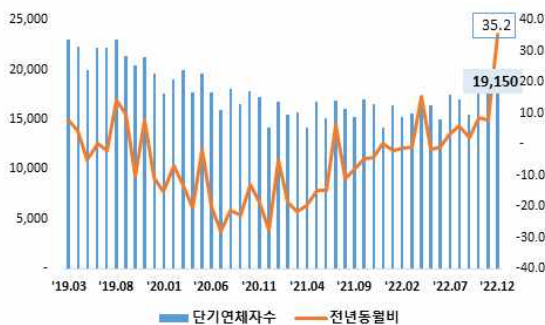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예금은행 지역별 기업대출(말잔)

○ (장·단기연체자) 지난해 3월부터 **장기연체자 증가** 전환, 10월부터 증가폭 확대, 연말 약 10%에 근접

- 단기 연체자수도 지난 7월부터 증가 전환, 10월부터는 8%를 상회하는 증가세, 향후 단기 연체자의 장기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 신용 악화도 우려** 요인

* 지역 대출보유자수 점진적 증가, 정책자금 대출보유자는 금리인상 시점 이후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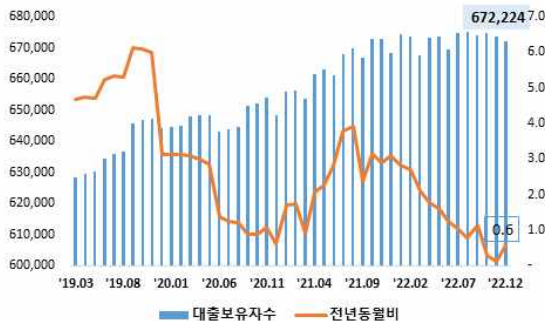
충남 단기 연체자수(명, %)



충남 장기 연체자수(명, %)



충남 대출보유자수(명, %)



충남 정책자금 대출보유자수(명, %)



자료 : 충남도청, KCB신용정보

<충남 소상공인 주요 부문별 동향(십억원, 명,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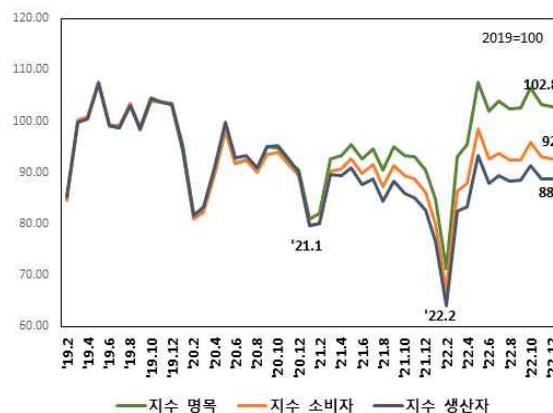
구분	'22.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전월차
소상공인&전통시장BSI	87.9	95.5	103.9	102.7	108.2	107.1	104.9	106.8	1.9
자금사정BSI	71.6	84.7	94.6	95.7	100.7	98.5	102.2	104.6	2.4
기타기업 대출금*	2,982	3,052	3,212	3,069	3,220	3,180	-	-	12.0
대출보유자수	673,803	675,031	674,196	674,886	673,817	672,224	-	-	0.6
정책자금 대출보유자수	37,959	26,371	26,198	25,937	25,678	25,291	-	-	-36.5
단기연체자수	15,265	17,051	15,517	18,402	17,801	19,150	-	-	35.2
장기연체자수	8,588	8,987	8,872	9,390	9,527	9,176	-	-	9.6

자료 :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사회경제패널조사 / 한국은행 예금은행 지역별 기업대출(말잔) / 충남도청, KCB신용정보KCB신용정보
 주1 : *는 전년동월비이며, PMI와 BSI는 체감 지표임
 주2 : 충남 전체 장단기연체자를 의미(소상공인만을 의미하지 않음), 단기(대출 혹은 카드사용액을 5영업일, 10만원 이상 연체한 자, 장기(대출 혹은 카드사용액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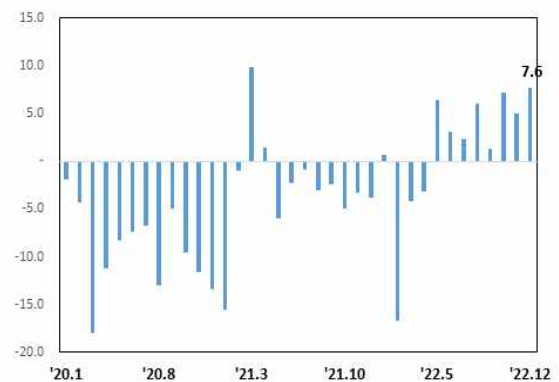
○ (매출) **전년동월대비 6.6% 증가, 8개월 연속 증가**

- 지난해 2월 저점 이후 회복세나 최근의 **물가상승을 반영할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
- 주요 비중이 높은 업종별 변화 추이를 보면, 자동차정비 업종의 회복세는 뚜렷한 반면, 가장 비중이 높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슈퍼마켓·편의점 등 유통업, 의류·학원 등은 여전히 어려운 모습

BC카드 사용액 지수4) 추이



전년동월비(%)



4) 전국 BC카드 고객의 충남 도내 사용액의 합(개인+법인)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매출표본으로 전체 소상공인 매출을 의미하지 않음. BC카드 사용액의 명목 금액을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고 2019년을 평균을 100으로 지수화하였음

<충남 소상공인 주요 업종별 매출 동향(%)>

업종별 ⁵⁾	'21.12월	'22.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비
전체 지수(소비자기준)	86.1	92.5	92.5	95.8	93.1	92.6	7.6
일반/휴게음식	68.1	85.7	80.8	88.6	81.2	84.1	16.0
유통업영리	84.1	96.3	99.2	90.5	86.1	86.8	2.7
음식료품	95.1	98.4	124.1	108.7	96.8	96.9	1.8
학원	90.2	81.9	83.2	83.4	85.4	84.2	-6.0
자동차정비/유지	112.6	99.0	97.3	96.6	107.1	117.1	4.5
숙박업	75.4	125.0	95.9	104.4	98.0	87.2	12.0
의류	78.4	39.6	55.5	83.0	70.5	72.6	-5.8

자료 :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사회경제패널조사 / 충남도청, BC카드 자료 재가공 / 한국은행 예금은행 지역별 기업대출(말잔)
 주 : 음식료품(농축수산물, 정육점, 제과점, 주류판매점,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 (신규 창업) 전년동월보다 -0.12%p 감소

-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이 쉬운 일반한식과 서양음식 등 음식점 창업이 활발한 모습(타업종 대비 높은 창업률)
- 편의점 등은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한 창업이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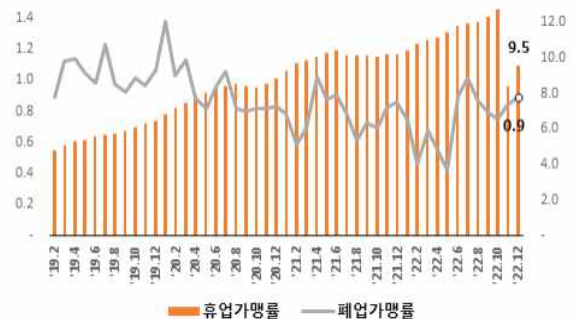
○ (휴·폐업) 전년동월보다 휴업은 -0.70%p 감소, 폐업은 0.04%p 증가

- 휴업은 2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폐업이 6개월 연속 증가**
-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정책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사업체를 유지, 폐업보다는 휴업을 선택
- 최근 경기전반에 대한 다소 낮은 기대감이 형성, **시장진입이 용이한 업종을 중심으로 창·폐업**이 나타나는 모습

신규 가맹점 추이(%)



휴·폐업 가맹점 추이(%)



5) BC카드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임

<충남 소상공인 주요 업종별 신규, 휴·폐업 동향(% , %p)>

업종별	'21.12월	'22.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차
신규 가맹률	1.2	1.1	1.0	1.0	1.1	1.1	-0.12
일반한식	1.2	1.2	1.1	1.3	1.2	1.2	-0.03
서양음식	2.7	2.5	2.1	2.2	2.3	2.3	-0.40
농축수산물	0.9	1.3	1.1	1.2	0.7	0.9	0.03
편의점	1.2	1.7	1.4	1.5	1.9	2.0	0.75
미용원	1.0	0.7	0.5	0.6	0.9	0.8	-0.23
휴업 가맹률	10.2	12.0	12.3	12.7	8.4	9.5	-0.70
일반한식	5.6	7.1	7.8	8.3	8.5	10.0	4.41
농축수산물	14.5	16.4	15.8	15.7	8.2	9.4	-5.17
화장품	22.5	24.8	25.4	25.6	10.9	12.1	-10.36
숙박업	15.6	16.3	16.2	16.4	10.2	12.4	-3.29
서양음식	5.9	7.9	8.4	9.1	10.4	12.5	6.54
폐업 가맹률	0.9	0.9	0.8	0.8	0.8	0.9	0.04
일반한식	1.2	1.3	1.2	1.1	1.3	1.3	0.07
서양음식	1.4	1.6	1.4	1.5	1.5	1.4	-0.02
농축수산물	0.7	0.7	0.5	0.7	0.4	0.9	0.17
편의점	0.9	1.6	1.3	1.4	1.1	1.5	0.62
숙박업	0.6	0.7	0.7	0.5	1.0	0.7	0.11

자료 : 충남도청, BC카드 자료 재가공

④ 고용

구분	고용률	취업자수						구인 배율	신규 구인	고용보험	
		전체	농림 어업	제조업	도소매 숙박 음식	자영업자				피보험자	순취득자
						유	무				
증감	↑	↑	↓	↑	↑	↓	↑	0.7	↓	↑	↓

* ↑ (10% 이하), ↑ 10% 이상, ↑ 20% 이상(감소 동일한 구조)

○ 양적지표 **완전한 증가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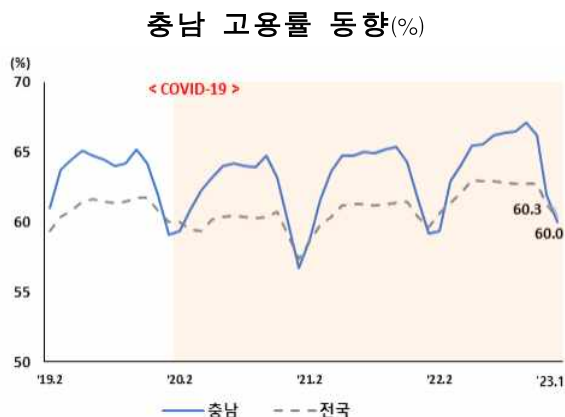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2.9%, 취업자수 2.4%, 고용률 0.8%p 각각 증가
- 다만, 증가폭은 점진적으로 둔화

○ 제조업 < 건설업·서비스업, 고용원 유 자영업자 < 고용원 무 자영업자가 고용 증가를 견인

- 산업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고용은 감소세를 이어오다 소폭 증가**한 반면, 대면소비 증가 등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고용은 전년 동월대비 5.3%나 증가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5%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2% 소폭 증가하며 증가폭 둔화

⇒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영세화가 지속**, 자영업자는 나홀로 사업체 운영이 증가하는 모습

* 무급가족종사자 전년동월대비 -23.4% 17개월 연속 감소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 동향(천명, %)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 증감률(전년동월비, %)



<충남 고용동향(천명, %, %p)>

구분	'22.1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전년동월비(차)
경제활동인구	1,156	1,297	1,304	1,288	1,209	1,190	2.9
취업자수	1,123	1,271	1,283	1,267	1,185	1,151	2.4
농림어업	117	198	197	176	110	100	-14.3
제조업	259	255	260	258	257	263	1.2
건설업	69	77	78	85	78	73	5.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82	195	199	198	195	191	5.3
고용률	59.2	66.5	67.1	66.2	61.9	60.0	0.8
자영업자	262	323	328	312	268	259	-1.2
고용원 유	57	53	54	51	50	50	-13.5
고용원 무	205	270	275	261	218	210	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구인배율 0.70으로 2개월 연속 1을 하회, **생산직 구인난**은 지속

- 코로나19 이후 전국보다(0.62) **구인난이 심화** → 최근 구인배율 **소폭 완화**

*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농림어업을 비롯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까지 구인난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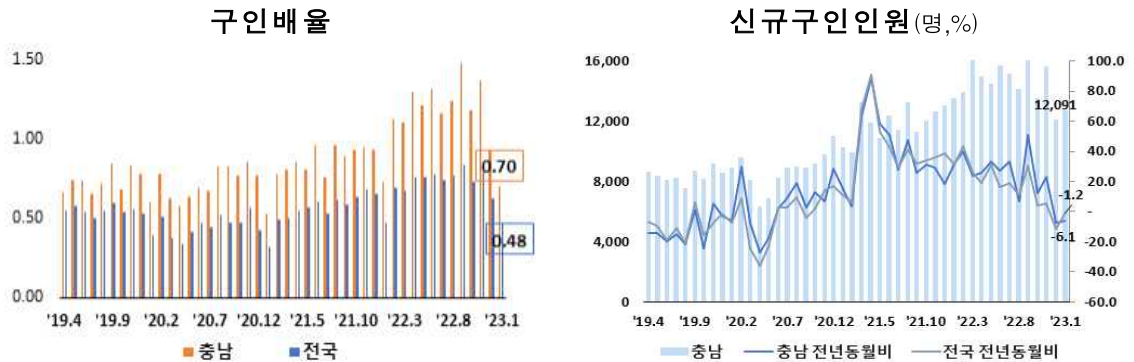
- 세부 업종별로 보면 관리직(0.3)과 보건·의료직(0.3)에서는 구직난이 발생한 반면, **농림어업·주요 업종별 생산직은 구인난 지속**

* 화학·환경설치·정비·생산직(4.9),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2.8), 섬유·의복 생산직(2.5), 식품가공·생산직(1.8), 제조단순직(1.9), 농림어업(1.6)

- (노동수요_신규구인) 전년동월대비 -6.1% 감소,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38.9%)·제조업(-2.7%)·건설업(-25.2%)·숙박 및 음식점업(-24.7%)·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 등 주요 업종에서 감소

- (노동공급_구직건수) 전년동월대비 -1.3% 감소, 14개월 연속 감소



○ 고용보험 순취득자수 2개월 연속 감소, 피보험자는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고용보험 순취득자수 12월 감소 전환

- 금년 1월 순취득자는 약 -3,12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90명 감소

- 권역별로 보면, 북부권(천안,아산,서산,당진)에서 -1,859명, 서해안권(보령,서천,태안) -169명, 내륙권(공주,부여,청양,홍성,예산) -535명, 남부권(논산,계룡,금산) -557명 모두 감소하였는데 서해안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전년동월보다 순취득자수 감소폭 확대

* 1년 계약직 계약 종료, 정년, 퇴직 등이 반영, 매년 12월 또는 1월 순취득자수는 감소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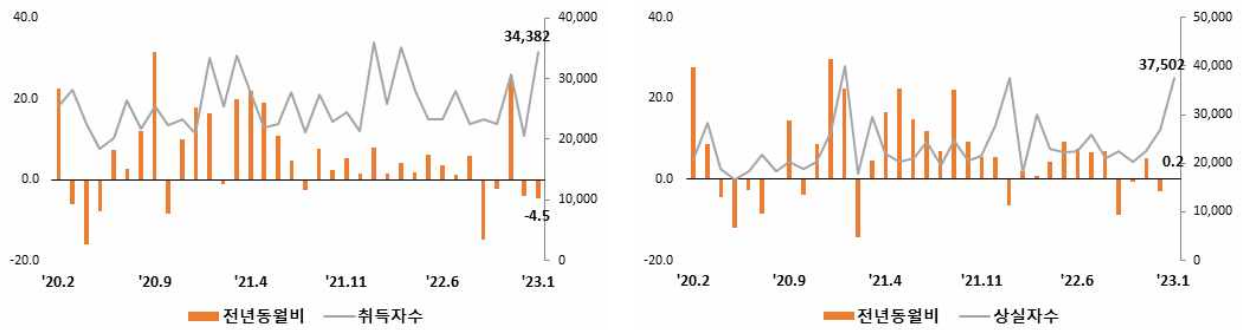
- 충남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57만 명,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이어 7번째

- 5대 핵심산업으로는 반도체, 전자부품, 석유정제업을 제외한 철강, 자동차, 화학물질 제조업 등에서 피보험자수 증가

* 최근 고용보험 취득자수 추이를 보면, 아산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재취득자가 늘어나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나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



취득·상실자수 동향(월별, 명,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충남 고용 주요 부문별 동향(명, %)>

구분	'22.1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전년동월비(차)
구인배율	0.73	1.48	1.18	1.36	0.93	0.70	-0.03
신규구인인원(명)	13,529	17,026	13,568	15,628	12,091	12,704	-6.1
피보험자수(명)	549,307	570,683	572,214	579,922	573,459	569,601	3.7
반도체	7,660	7,577	7,465	7,449	7,447	7,446	-2.8
전자부품	11,487	11,464	11,440	11,454	11,428	11,473	-0.1
자동차	40,499	40,985	41,056	46,910	47,777	17,748	17.9
1차금속	14,864	15,189	15,178	15,240	15,254	14,994	0.9
석유정제	2,263	2,268	2,266	2,270	2,269	2,255	-0.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7,980	18,448	18,450	18,563	18,375	18,497	2.9
취득자수(명)	36,015	23,385	22,445	30,594	20,506	34,382	-4.5
상실자수(명)	37,445	22,470	20,331	22,579	26,946	37,502	0.3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주: 구인배율 = 구인인원/구직건수, 1을 상회하면 구인난을 의미

〈핵심산업별 피보험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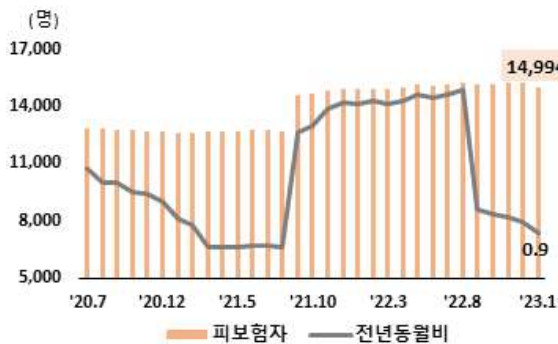
○ (1차금속)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 이후 소폭의 변동성 시현 중

○ (전자부품 등) 최근 시스템반도체 투자 증가 등으로 고용효과 증대, 스마트폰 · 글로벌 가전제품 시장 경기 둔화 등으로 소폭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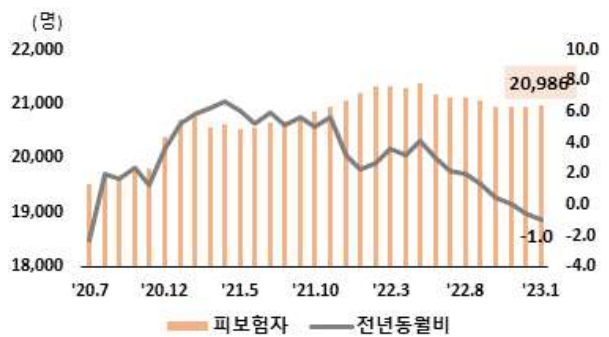
○ (자동차 제조업) 아산 부품사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 재취득한 것으로 회사명칭 변경, 고용계약의 갱신 등으로 인한 발생으로 예상

○ (석유화학)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큰 변동성 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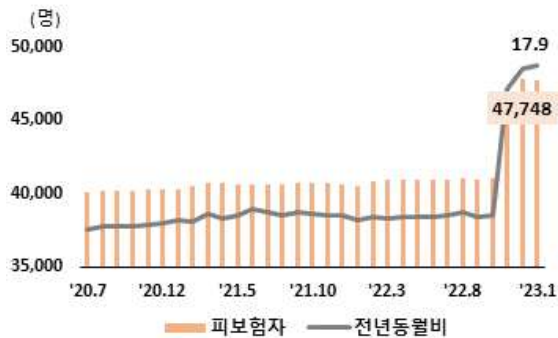
<1차금속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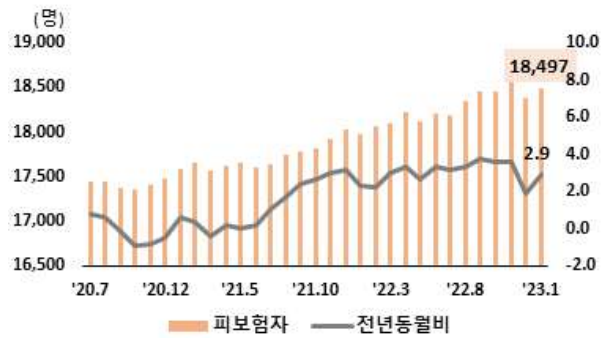
<전자부품 등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화학물질 등 제조업>



<석유정제업>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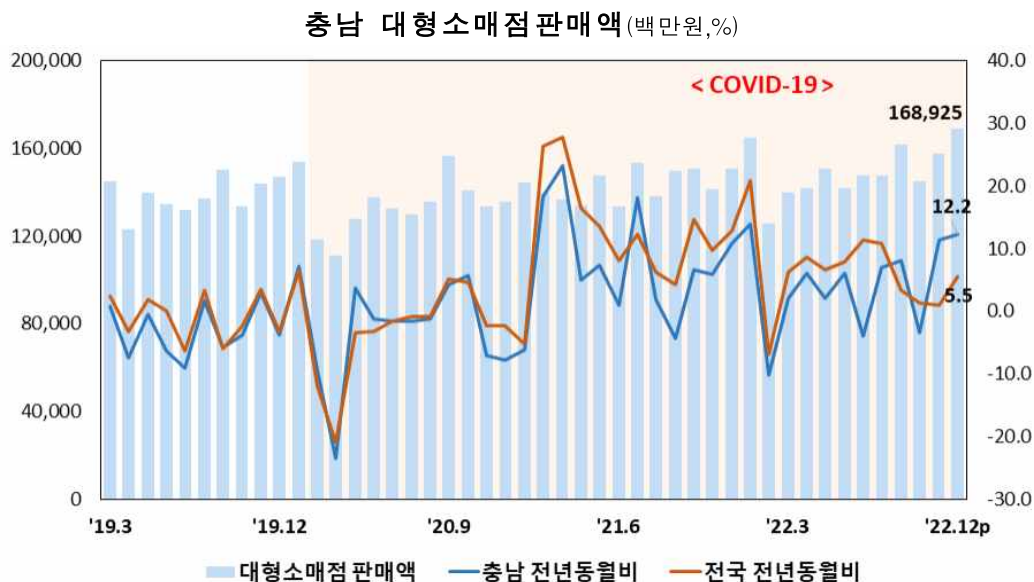
⑥ 소비와 물가

구분	소비	물가								
	대형소매점 판매액	소비자 물가	품목별						생활 물가	신석 식품 물가
			농축산물	공산품		전기 가스 수도	서비스			
				가공식품	석유류		개인	공공		
증감	↑	↑	↑	↗	↑	↘	↑	↓	↑	↑

* ↑ (10% 이하), ↗ 10% 이상, ↗ 20% 이상(하락도 동일한 구조)

○ (소비)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 2개월 연속 증가

- 동기간 전국 평균 5.5% 상회하는 증가세, 다만 전국은 10개월 연속세 증가세
 -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으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전국은 -0.1% 감소
-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충남의 소비 증가세는 뚜렷
 - * BC카드 사용액 분석을 고려할 때, 도내 소비 증가세보다 타시도에서 유입되는 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기록, 하지만 도내 소비 비중이 역내유입 소비 비중보다 높다는 점에서 도내 소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중요



○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5.0% 상승,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폭 2위

- 동기간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 도민의 생활과 좀 더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 주요 물가상승을 견인한 품목은 전기·가스·수도(27.6%), 가공식품(10.0%),

화장품(7.2%), 채소(8.1%) 등 신선식품은 증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석유류(1.5%)는 증가폭은 둔화되었으나 경유와 등유 등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전기·가스 등 사용료 인상과 지난해 원자재 상승에 따른 제품가 전이로 인한 물가상승 본격화, 전국적인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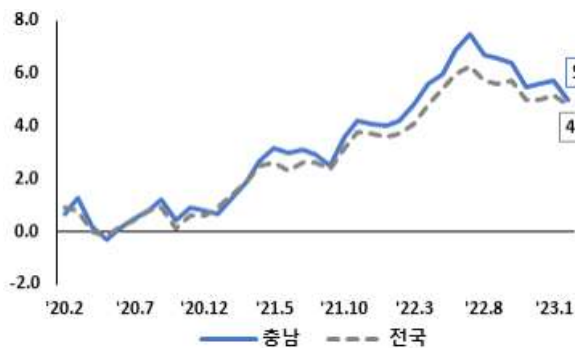
* 전기·수도·가스 물가 추이(%) : 3.4(22.1월) 7.6(4월) 15.5(7월) 21.9(10월)으로 상승

* 글로벌 LNG 가격과 연동된 가스요금 인상이 주된 요인(소매는 연중 1회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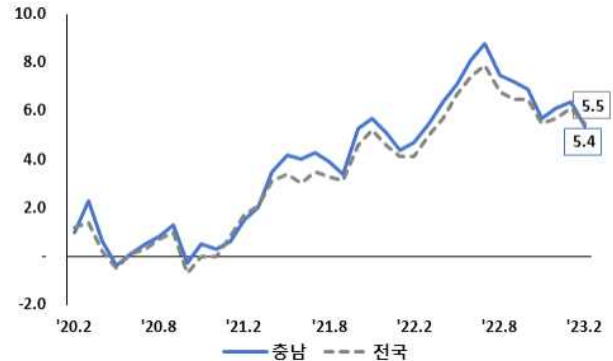
- 타시도에 비해 충남이 높은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원인으로는 상대적으로 약한 농식품·석유류 유통구조도 하나의 요인

* 농산물 유통의 경우, 서울·대전 등 도시를 경유하여 유통 / 주유소 등 소수의 직영점 운영 등으로 가격 하락기 더디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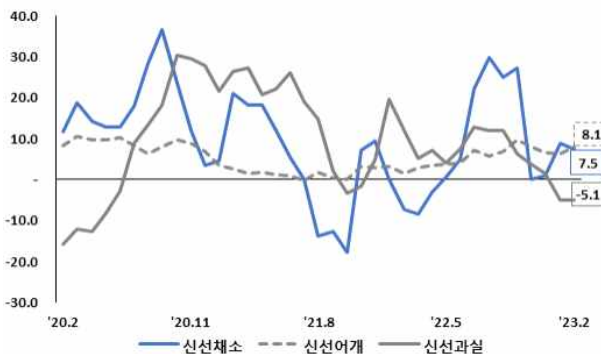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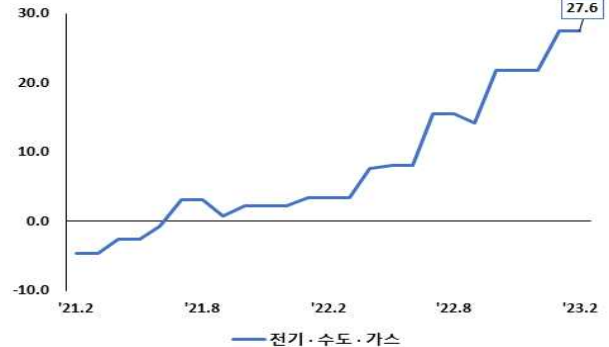
생활물가지수(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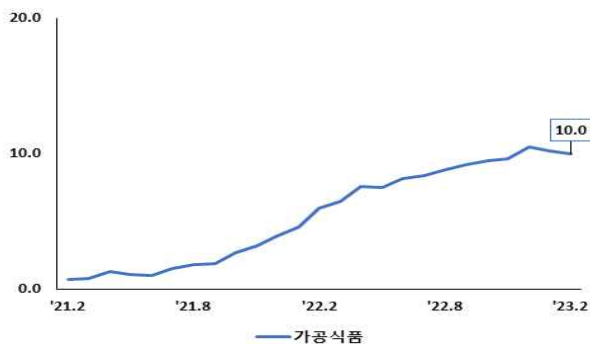
신선식품 지수(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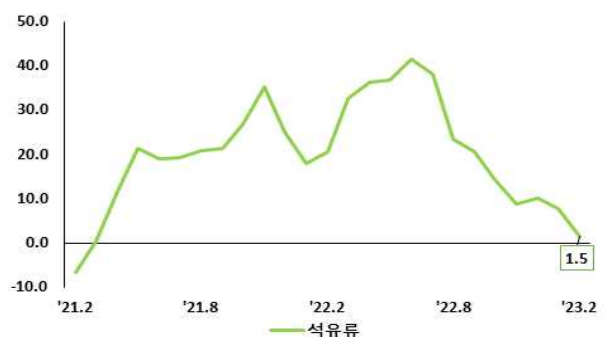
전기수도가스(전년동월비,%)



가공식품(전년동월비,%)



석유류(전년동월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충남 소비 및 물가 동향(백만원, %)>

구분		'22.2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전년동월비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	125,696	161,787	145,192	157,758	168,925	-	-	12.2
	소비자물가지수	105.90	110.28	110.43	110.13	110.28	111.07	111.17	5.0
물 가	상품	107.57	113.66	113.93	113.34	113.38	114.08	113.88	5.9
	농축수산물	112.66	121.40	117.14	110.98	111.77	114.38	113.10	0.4
	공업제품	106.80	111.56	112.02	112.72	112.59	112.31	112.34	5.2
	가공식품	105.91	111.20	113.11	113.67	114.87	115.40	116.50	10.0
	석유류(7월고점)	126.76	142.24	139.16	139.73	135.00	131.00	128.68	1.5
	전기·수도·가스	102.92	115.88	125.36	125.36	125.36	131.32	131.34	27.6
	서비스	104.09	106.63	106.64	106.66	106.93	107.82	108.25	4.0
	공공서비스	102.02	100.60	100.61	100.62	100.66	1001.38	101.36	-0.6
	개인서비스	105.30	109.58	109.58	109.58	109.58	111.15	111.83	6.2
	생활물가지수	106.9	112.3	112.3	111.8	111.7	112.5	112.7	5.4
	신선식품지수	113.3	128.8	119.9	108.3	109.0	115.7	116.7	3.0
	신선어개	103.6	107.5	110.1	111.7	111.5	110.8	112.0	8.1
	신선채소	108.8	143.5	123.5	105.0	100.8	113.5	116.9	7.5
	신선과실	126.7	127.2	123.2	109.6	117.5	122.4	120.2	-5.1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2020=100) / 서비스업동향조사 /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충남사회경제패널조사(소비자)

다. 결 론

○ (전반적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7개월 연속 하락, **경기 하강기**

-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7개월 연속 하락
- 체감(실적)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심리지수 기준치 100을 하회

○ (생산과 대외거래) **뚜렷한 핵심산업의 위축**,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 큰 폭 감소, 자동차·석유정제업을 제외한 주요 핵심산업 생산 감소

- 경제부문별로 보면, **자동차·석유정제업을 제외한** 반도체 등 전자부품, 1차 금속, 화학물질 제조업 등 **핵심산업 생산 위축**
- 전체 **수출액이 7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큰 폭 감소
- 주요 핵심산업 동향을 보면, 아이오닉6, 그랜저 신차 출시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활력을 찾은 반면, 반도체 경기둔화에 따른 지역 소재 반도체 기업 지난해 영업이익이 감소, LG전자 휴대폰 사업 중단에 따른 영향이 일부 나타나는 중
- 주요 소재관련 산업(이차전지 관련)의 생산 증가와 투자 증가, 에틸렌 스프레드 회복 전환 등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전망은 호조
- 수출 둔화로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나 일부 산업의 투자 지속, M&A 등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향후 경기둔화 국면을 벗어나 회복, 성장단계에서 신성장동력이 될 가능성 상존

구분	생산(1월)	출하(1월)	재고(1월)	주요 수출 품목(1월)
산업활동	↓	↓	↑	수출↓, 수입↓
반도체	↓	↓	↑	반도체 ↓
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석유화학	↓	↓	↓	기초유분 ↑ 석유화학중간원료↓, 합성수지↓
석유정제	↑	↓	↓	석유제품 ↑
자동차	↑	↑	↓	자동차↓, 자동차부품↓
1차금속	↓	↓	↓	철강판↓

* ↑ (10% 이하), ↑ 10% 이상, ↑ 20% 이상(감소 동일한 구조)

○ (중소기업) 러-우 전쟁, 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난해 상반기 대비 경기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출 3개월 연속 감소, 자금사정 2개월 연속 하락, 투자 둔화** 등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모습

- 충남의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 중 약 17.4% 수준이지만 총 기업수는 1,163개로 약 85.8%를 차지
-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류와 화장품, 플라스틱제조업 등이며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규모는 작지만 다수의 기업과 도민이 종사 중
- 최근 생산원가 상승, 제조업 전환기로 인한 혼란, 가전제품 수요 둔화, 반도체 등 핵심산업 위축 등 도내 중소기업에 미칠 악영향 다수 발생, 단기 세부 산업별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중요

구분	경기	수출	인력사정	원자재	자금사정	투자
증감	↑	↓	↑	-	↓	↓

* ↑ (10% 이하), ⬆ 10% 이상, ⬇ 20% 이상(감소 동일한 구조)

○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였지만 낮은 수익 개선세, **폐업률 소폭 상승, 장기 연체자 증가, 물가 상승** 등은 부담으로 작용

-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영향보다는 코로나19 이후의 회복력의 문제가 아직까지 존재
- **높아진 물가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익성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소비업종이 아닌 중간 생산단계 업종의 경우, 최근 공공요금 인상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
- 또한 전통시장을 제외한 소상공인 자금사정BSI는 여전히 기준치 100을 하회하고 있고 지난 연말부터 도내 **카드 또는 대출 장·단기 연체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
- 향후 물가 상승 압박 요인 상존, 기존 소상공인 정부지원 자금 상환 도래 등 연착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 중요
- 다만, 최근 대면 소비가 살아나고 있어 매출의 점진적 회복세는 기대, 도내 소비뿐만 아니라 역외 유입 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소 긍정적

구분	경기	자금 사정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매출	창업, 휴·폐업률		
						신규가맹	휴업	가맹해지
증감	↑	↑	↗	↑	↑	↓	↓	↑

* ↑ (10% 이하), ↗ 10% 이상, ↘ 20% 이상(감소 동일한 구조)

○ (고용) 양적 성장 지속하였지만 **영세화된 자영업자, 생산직 구인난 지속** 등 구조적인 문제 상존, 최근 고용보험 순취득자수 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습

-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등 증가세 지속, 증가폭은 둔화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
- 화학·환경설치·정비·생산직(4.9),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관금, 단조, 주조, 용접, 도장 등, 2.8), 섬유·의복 생산직(2.5), 식품가공·생산직(1.8) 등 주요 생산직과 제조단순직(1.9), 농림어업(1.6) 등의 구인배율 1을 상회
- 최근 경기둔화가 뚜렷한 반도체 산업의 피보험자수 감소, 은퇴 등 세대교체가 활발한 석유정제업도 소폭 감소
- 자동차, 1차금속, 소재사가 분포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피보험자수는 증가

구분	고용률	취업자수						구인 배율	신규 구인	고용보험	
		전체	농림 어업	제조업	도소매 숙박 음식	자영업자				피보험자	순취득자
						유	무				
증감	↑	↑	↓	↑	↑	↓	↑	0.7	↓	↑	↓

* ↑ (10% 이하), ↗ 10% 이상, ↘ 20% 이상(감소 동일한 구조)

○ (소비와 물가) **소비는 개선**되었지만 **가공식품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세 지속

- 대면소비 증가로 대형소매점을 중심으로 한 소비는 증가
- 전기·가스 등 사용료 인상과 지난해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 전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며 체감물가 급상승 중
- 공업제품 중에는 석유류 상승세는 안정적이거나 가공식품이 전년동월대비 10%가 넘는 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도 6%

상회하는 상승세 지속

구분	소비	물가								
	대형소매점 판매액	소비자 물가	품목별						생활 물가	신석 식품 물가
			농축산물	공산품		전기 가스 수도	서비스			
				가공 식품	석유류		개인	공공		
증감	↑	↑	↑	↗	↑	↗	↑	↓	↑	↑

* ↑ (10% 이하), ↗ 10% 이상, ↘ 20% 이상(하락도 동일한 구조)

⇒ 지난해 글로벌 원자재가 변동성 등이 실제 산업 현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며 안정적이던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 인상 요인으로 작용 → 여전히 회복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

⇒ 더불어 도내 주요 핵심산업의 생산 위축과 수출 감소, 제조업 전환기, 금리 인상 등으로 힘든 시기인 중소기업에게도 물가 상승은 또 하나의 위축 요인

⇒ 단기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경기와 자금사정 BSI의 경우에도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경우가 다수, 100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으로 응답 기업의 1/2이 넘는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

⇒ 이상 분석된 충남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일부 산업과 업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취약한 산업부문과 업종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

